

## 메헤란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란에 관한 이야기

메헤란 선생님은 12년 전에 한국에 오셔서 현재 선교활동과 더불어 '다문화도서관 모두'에서 다문화 강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란인 남편과 결혼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이름인 '메헤란'은 이란어로 '햇님의 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 우리 이란은요

이란은 2,500년 전에는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란 사람들은 페르시아 문명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나라 이름을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페르시아라는 이름에는 종족 문화에 대한 애정과 고유의 문명에 대한 자부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란이 덥고 건조한 나라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남쪽 지방은 매우 덥고 사람들의 피부색도 검지만 북쪽 지방은 춥고 사람들의 피부색도 하얗습니다.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의 날씨는 한국과 비슷해서 한국처럼 사계절이 있습니다. 이란의 바다 쪽 지방은 습기가 많고 비가 많이 오지만, 건조한 지방도 있고, 추운 지방도 있지만 춥지 않은 지방도 있습니다. 이란은 모두 31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마다 날씨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란은 민족은 같지만 워낙 지역이 넓어서 남쪽 지방 사람들과 북쪽 지방 사람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할 정도입니다.



### 이란의 국기는요

이란의 국기는 이란 혁명 전에는 초록, 빨강, 하얀색이 있고 가운데 사자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자는 강력한 이란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혁명 이후에는 사자 대신 아랍어로 '알라'(하나님의 이름)를 쓰고 있습니다. 국기 중간 중간에 나오는 문장은 코란에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은 위대하다."라는 문장입니다. 그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초록색과 하얀색은 평화를 의미하고, 빨간색은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피 색깔을 의미합니다. 국기가 만들어진 이래 두세 번쯤 바뀌었는데, 색과 모양은 같지만 중간 마크가 바뀌었습니다.



### 이란의 옷차림, 음식, 주거는요

이란에서는 관광객도 여성은 히잡을 써야 하고 긴 소매 옷을 입어야 합니다. 다른 이슬람 국가는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지만, 이란은 이 점에서 엄격합니다. 옷 색깔에 대해서도 엄격한 편이라, 검은색 아니면 갈색을 주로 입습니다. 이란에서는 얼굴을 보이게 씩니다. 이란 남쪽에서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다 가리지만요. 결혼할 때는 웨딩드레스도 입고 서양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밖에 나가거나 실외에 나가면 머리가 안 보여야 하기 때문에 실내와 실외 있을 때 머리에 쓰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란은 예전에 비해 아주 많이 변한 곳은 아닙니다. 옷들도 여전히 전통적이고 히잡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망토는 원래는 발목까지 오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무릎까지 내려와도 되게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안에 긴 바지는 갖춰 입어야 하구요.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이란의 전통적인 음식에는 'ghormeh sabzi' 라는 것이 있는데, 한약과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이란에서는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소고기나 양고기, 양파, 밀, 특별한 이란의 다섯 가지 야채를 같이 썰어서 볶아 먹습니다. 외국인들도 이 맛을 좋아합니다. 이란의 바베큐도 맛있습니. 한국에서는 김치를 먹지만, 이란에서는 피클을 먹습니다.

이란의 전통적인 집은 '마술레(masuleh)' 라고 하는데, 한 집의 마당이 다른 집의 지붕이 되는 특이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쇼말(shomal)' 은 초가집같이 산악지대에 위치한 집들이고, 북부지역에서 주로 이런 집을 짓고 삽니다. 한국의 제주도와 비슷한 지역인 '키쉬(kish)' 라는 곳은 바다색이나 나무가 제주도와 흡사한 섬입니다. 북쪽 지역은 비가 많이 오니까 나무가 잘 자라서 나무가 집을 둘러싸고 있는 경우가 많고, 사막에서는 철을 쓰지 않고 흙집을 짓기도 합니다. 현대적인 집으로는 아파트와 주택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한국의 아파트와 비슷하고, 집에서는 카펫을 써서 보통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 이란의 명절과 전통 옷은요

이란의 설날은 음력 3월 20-21일인데, 설 일주일 전에 산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인 '하지피루즈' 라는 분이 빨간 옷을 입고 밖에서 탬버린을 치면서 사람들에게 설날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사람은 얼굴을 까맣게 칠하는 게 특이하지요. 사람들하고 같이 얼굴을 까맣게 칠하는데 겨울이 너무 춥기 때문에 얼굴을 까맣게 칠하고 봄이 온다는 말을 전해 줍니다. 이 축제는 이란의 고유한 전통입니다. '하프트 신(haft seen)' 이라고 해서, 설날 되는 날 상 위에 일곱 가지 물건을 놓는 전통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에서 차례를 지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일곱 가지는 계란, 스위츠, 사과, 물고기, 곡물, 꽃, 거울입니다. 코란 책도 올려놓습니다. 이 모든 것이 's' 로 시작하기 때문에 'seven s' 라고도 부릅니다. 이란에서는 일 년에 한번 설날에 대청소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때 학교는 15일을 쉬고 회사는 4일정도 쉬어요. 마당에서 카펫을 다 청소하기도 합니다. '사브제(Sabzeh)' 라고 해서, 밀과 보리를 키우는 전통도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전통 옷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레바스 코디(lebas kordi)' 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입으시는 옷이고, 젊은 사람들은 설날이나 결혼식 때 입기도 합니다. 'lebas' 는 이란어로 옷이라는 뜻이에요. 이 옷은 정말 화려해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 옷은 원단을 사서 각자 입을 사람이 손수 만들지만,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기성품도 팔기도 합니다.



### 이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물건은요

아기가 태어날 때 '나라지' 라고 부르는 특별한 구슬을 핀에 꿰어서 아기 옷에 꿰어줍니다. 코란은 소중한게 여겨서 모든 집에 있습니다.



### 이란의 예절은요

제가 이란에서 학생이었는데 처음으로 공원에서 한국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말을 몰라서 영어로 인사했더니 그 분이 제 손을 잡으며 너무나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절대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남자들끼리는 악수하고 뽀뽀하고 인사하며 안아줍니다. 여자들끼리도 뽀뽀하고 안아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가족(친척까지 포함)이 아니면 악수만 눈치보고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어딘가를 방문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과일이나 꽃이나 화분 같은 것을 가지고 가구요, 스위츠(단 음식)하고 꽃을 많이 가져갑니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살람' 이라고 인사 하면 됩니다. 그리

고 악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남녀사이에 악수가 안 되는 건 이슬람 근본주의자일 경우에만 금기시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남자가 먼저 악수를 청하면 같이 악수로 인사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을 맞이하는 사람은 스위트와 홍차, 과일 등을 준비하고 같이 식사를 하자고 권유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집에 누군가 방문을 하면 남자가 맞이합니다. 남자가 없을 경우에는 여자가 하기도 하지만요.



### 이란의 남성과 여성은요

한국 사람들은 이란의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란에서도 여성들이 대학도 가고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남자는 여자보다 더 우선인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의 땅이 있다고 하면, 법적으로 아들은 딸보다 유산인 땅을 2배 받습니다. 이혼할 때에도 남자가 이혼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란에는 남자가 여자한테 결혼할 때 써 주는 '신부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부값은 여자가 요구하면 남자가 언제든지 줘야 하는 것인데, 이혼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여성에게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여성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면 그 신부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란은 일부다처제인데,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고 싶으면 첫 번째 부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부인이 허락을 안 하면 첫째 부인이 모르게 결혼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결혼은 법적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출산한 아이가 교육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이란에서 결혼식은 남자가 다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TV나 냉장고 등은 여자의 가족이 자기 딸에게 준비해 줍니다. 아이를 우유로 키운다고 해서 장모에게 사위가 드리는 돈을 '시르바허(우유값)'이라고 하는데, 그걸 조금 받아서 결혼에 필요한 것들을 장만합니다. 엄마가 딸을 고생하며 키운 값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 이란의 가족은요

이란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삼촌, 삼촌, 조카를 모두 가족이라고 봅니다. 사촌까지는 외가나 친가 상관없이 다 가족으로 여깁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한 집에 같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친정살이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데릴사위처럼 살면 남들이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 주로 여성이 시댁에 사는데, 시어른은 장남하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 여럿의 집에 돌아가면서 같이 살고, 자식들도 부모를 돌아가면서 돌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란의 교육은요

가정 교육에서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에게 강조하는 가치가 좀 다른데, 남자의 경우에는 커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어떤 기술을 배우라고 하고, 여자아이에게는 결혼해서 엄마가 되어야 하니까 요리, 바느질 등을 가르칩니다. 이란의 유치원은 남녀 공학이고, 초등학교~고등학교는 남학교와 여학교가 따로 있는데, 대학은 남녀공학입니다. 일하지 않는 아이들은 5살 때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는 7살부터 보내구요, 2011년까지는 초등학교가 5학년까지만 있었는데 2012년부터 6학년이 생겼다고 합니다. 중학교는 3학년이구요, 제가 다닐 때는 고등학교가 4학년이었는데 이제는 3학년만 다니고 나머지 1년은 대학준비 기간이 되었습니다. 대학교는 2년과 4년짜리가 다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은 남녀 모두 의대입니다. 이란은 성장기 초반부터 남녀를 달리 구분해서 교육하는데, 여성의 전문직 진출도가 높습니다. 이것은 이란의 여성들이 현재의 상태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란에서는 여성이 공부를 하지 않음

면 대체로 빨리 결혼하는데, 가정이 생기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학생으로 있을 때에는 부모도 여성에 대해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자기성취를 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결혼적령기에 들어서면 부모들의 개입이 심해지기 때문에, 여성들은 전문직을 가져서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고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 123

### 선호하는 색과 숫자는요

색에 대한 전통적 선호는 없습니다. 위험을 표현하는 색은 노란색입니다. 싫어하는 숫자는 13입니다. 그래서 13일이 되면 그날은 꼭 밖에 나가고 집에 있지 않으려 해요. 또 꼭 밖에 나가야 하는 날은 아까 말했던 밀과 보리를 길러 싹을 틔운 사브제 'Sabzeh'를 가지고 내년엔 그 소원이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새해에 꼭 밖에 나갑니다. 좋지 않은 기운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사브제를 지니는 것입니다.



### 어렸을 때 했던 놀이는요

고무줄을 가지고 친구들과끼리 놀거나 옷 만드는 것을 많이 좋아했어요. 가위로 종이를 잘라서 옷 만드는 것을 무척 좋아해서 몇 달 동안 그렇게 가지고 논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재미있었다고 느껴집니다. 여자아이는 소꿉놀이를 많이 하고, 남자아이들은 자동차 같은 것을 좋아합니다. 한국과 비슷해요.



### 이란과 한국의 관계는요

원래는 원유의 수출과 수입 많았는데, 최근에 미국의 영향으로 관계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란 대사관이 한국에 있습니다. 인천의 차이나타운 가까운 곳에 작은 페르시아 박물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식료품점이나 이란 음식점은 한국에 없습니다.



### 한국의 좋은 점과 힘든 점은요

언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어려웠구요, 저를 대하는 한국 사람들 가운데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묻고는 대답하기도 전에 '필리핀 사람이냐?'고 묻는다든지, 이란 사람이라고 대답하면 불쌍하다며 동정어린 시선으로 본다든지, 김치가 없는 나라에서 어찌 사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 참 난감했습니다.